

✖	소식지 제 84 호 (2008년 5월)
발행인: 채희락 편집인: 유은정 발행처: 한국어정보학회 발행일: 2008년 5월 16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유은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880-6094 e-mail: ejyoo@snu.ac.kr

1. 2008년 정기학술대회 개최 안내

지난번에 안내해 드렸던 것과 같이 올해 여름 학술대회는 6월 20-2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발표를 원하는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논문초록을 5월 23일까지 전종섭 연구이사 (jongsupjun@korea.com)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집 (Call for Papers)

한국어정보학회는 연례 학술대회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08년 6월 20-21일 (금-토)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술대회 주제: 언어학과 언어처리의 조화로운 만남
특강: 최재용 (고려대학교),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최: 한국어정보학회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발표 논문 초록(abstract)을 5월 23일까지 학회 연구이사인 전종섭교수(jongsupjun@korea.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이 준비가 덜 되었으나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우선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발표 자료집(proceedings)에 실을 논문 또는 핸드아웃(handout)은 6월 8일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논문 초록(abstract)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제: 언어학의 모든 분야
분량: A4용지 1~2 페이지
양식: 좌·우 여백 30mm, 상·하 여백 35mm, 줄 간격 155%
제출요령: 아래아 한글로 작성된 file을 e-mail로 송부

2. PACLIC 22 논문모집 안내

2008년 11월 20-22일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PACLIC 22의 논문모집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cs.dlsu.edu.ph/nlp-team/paclic22>

3.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	-------------------------------------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출판시 라텍 편집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30,000원

논문 게재료: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0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0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50,000원)

- ▶ 논문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제출에 관해 의논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윤영은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2008년도 연회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우체국 012336-01-001683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2008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강범모(고려대),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운(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한국 IBM),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고영수(한국외대), 김학진(한국외대), 남승호(서울대), 류수린(서울대), 신근영(한양대), 양재형(강남대), 염재일(홍익대), 이미순(서강대), 이영주(서울여대), 이해운(한국외대), 임경섭(동신대), 임홍빈(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수정(서울대), 차종열(대전대), 한나래(고려대), 홍문표(성균관대), 홍민표(명지대)
- ▶ 기관회원: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국회, 단국대(서울캠퍼스), 단국대(천안캠퍼스), 방통대, 부산대, 상명대(천안캠퍼스), 상지대, 세종대, 위덕대, 조선대, 한경대, 한국외대(용인캠퍼스), 한양대(안산캠퍼스), 홍익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 주지하시다시피 7월 21-26일에 CIL 18(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이 개최됩니다. 등록비 할인 혜택이 있는 사전등록 마감일이 5월 3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cil1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달아 7월 27-29일에는 ICCS 2008(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gnitive Science)도 열리게 됩니다.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iccs.yonsei.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입회원**(소식지 83호 이후)
정회원: 정수정(서울대), 홍문표(성균관대)
-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유은정(총무이사) eiyoo@snu.ac.kr)

7. 월례 논문발표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의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발표 이외에 분야별 FISA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특강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모임에는 양병선(전주대) 교수님의 역할지시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 분야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수정(서울대) 선생님의 기획논문 발표와 윤재학(경희대) 교수님 및 위혜경(한국사이버대) 교수님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류병래 연구이사(ryu@cnu.ac.kr)나 유은정 총무이사(eiyoo@snu.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8년 5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독어 동사 관용구의 사전적 기술에 관하여

정수정 (서울대학교)

언어 습득에 있어서 관용구는 다른 언어단위에 비하여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지식과 대화 상황 적합성이 요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용구가 다른 언어단위에 비하여 화용론적 제약이 강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학습자, 특히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 특수사전은 일반 모국어 대상 사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상 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모어 화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 감각 Sprachgefühl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부재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모어 화자에게는 이미 내면화 되어 interiorisiert 있어서 사전에 표기될 필요 없는, 잉여의 어떤 어휘정보가 외국인 화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예로 동사의 결합 관계, 수동화 가능성 여부, 명령문 가능성 여부, 관사 용법, 형용사의 텍스트에서의 제약성 여부 등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 독한사전의 관용구 기술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한사전의 관용구 기술을 외국인, 특히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학습자 사전 Lernerlexikografie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FISA 특강>

Role and Reference Grammar: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양병선 (전주대학교)

Role and Reference Grammar (RRG)는 1980년 초에 미국 언어학계에 최초로 소개되었고 Foley and Van Valin (1984), Van Valin (1993), Van Valin(2004, 2005), Van Valin and LaPolla (1997), B. S. Yang (1994) 등을 통해 발전된 구조-기능주의자 문법 이론 (a structural-functional theory of grammar, Van Valin 1993), 혹은 온건 기능주의론 (Moderate Functionalism, Van Valin 1991a) 이다. RRG에 대한 최초의 자세한 이론서는 Foley and Van Valin (1984)이며, 이 이론을 수정, 보완, 발전시킨 이론은 Van Valin (1993)이다. 언

어를 의사전달과 인지 (Communication and Cognition)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이론을 비교하며 RRG의 통사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은 Van Valin and LaPolla (1997), Van Valin(2004, 2005) 이다. RRG이론의 틀 안에서 의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다양한 연구는 B. S. Yang (1994) 이며 한국어로 된 최초의 개론서는 양병선 (1998) 이다.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RRG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단문을 중심으로 RRG의 핵심이론인 RRG의 통사구조, 의미구조, 정보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Wh-sentence, dative-shift, passivization을 RRG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서 RRG의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한다.

현대언어학의 주요목적은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언어현상 기술은 개별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모든 언어에 보편 타당한 것 (language universals)을 기술하는 것, 한 언어가 다른 언어와 어떻게 다른가를 기술하는 것 (language typology)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언어의 의사소통기능 (communicative functions of language)의 중요성에 대한 언어학적 이론과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러한 언어학의 일반목적 달성을 위해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적 접근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주의자 (formalist) 또는 구조주의자 (structuralist)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이다.

RRG는 명확히 구별되는 극단적인 이 두 관점을 동시에 취한다. RRG는 Chomsky와는 달리, 언어는 의사 전달의 사회적 행위의 체계로 간주하며 문법구조의 의사전달 기능을 언어분석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점에서 RRG는 기능주의자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Hopper의 'Emergent Grammar'와 같은 극단적인 기능주의론은 아니다. 즉 언어는 체계이며 문법은 구조적인 체계와 시도라는 전통적인 구조주의자인 Saussure의 개념을 따른다. 이 점에서 RRG는 형식주의자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문법구조는 오직 문법구조의 의미와 의사전달 기능에 의해서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형식주의자와는 구별된다. 통사론은 자립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며, 구조체계를 정의하는 추상적인 계열관계 (paradigmatic relation) 와 통합관계 (syntagmatic relations)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관점에서의 공기 (concurrency) 와 결합 (combination) 관계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화용론 적인 공기와 결합관계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Van Valin 1993:2). 따라서 RRG는 구조-기능주의자 문법 이론 (a structural-functional theory of grammar, Van Valin 1993), 혹은 온건 기능주의론 (Moderate Functionalism, Van Valin 1991c)으로 분류된다.

또한 RRG는 인지적인 면에서 이 두 극단적인 관점과 대별된다. Chomsky (1965)는 언어의 습득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있고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습득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를 통하여 선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Hooper (1987)는 언어에 대해 어떠한 인지적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언어습득에 대한 RRG의 견해는, Van Valin (1991a, 2004, 2005), Van Valin and LaPolla (1997)에서 제시하듯이, 문법은 제멋 대로이며 따라서 배울 수 없다는 관점을 거부하며,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타고난 인지능력과, 경험에 의해 습득한 정보에 의해 문법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Chomsky에 의해 견지된 자연발생적인 언어구조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

RRG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통사이론과 구별된다. RRG가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GB] 나 Relational Grammar [RelG]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통사표시 (syntactic representation)에 있어 오직 한 층위 (level)만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move- α 나 문법관계 변화규칙 (relation-changing rule) 같은 변형규칙 (transformation rule)이 없다는 점이다. 표시된 통사구조는 실제 발화된 구조형태와 같으며, 이 통사구조는 의미구조에 linking algorithm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문법관계 (grammatical relations)에 관한 RRG의 가정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른 통사이론과 다르다. 첫째, RRG는, RelG나 LFG와는 달리, 문법관계를 기본적인 것으로 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GB에서처럼 구조적 배열 (structural configurations)에 의해 도출된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둘째, RRG에서 문법관계는 오직 하나의 통사기능, 즉 주어 (RRG의 용어로는 pivot)만을 인정하며 직접목적어나 간접목적어와 같은 개념은 없다. 셋째, RRG는 문법관계가 언어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의미역 (semantic roles)이 언어 보편적이라고 간주한다.

소유의 의미유형

윤재학 (경희대학교)

한국어에서는 영어권 문화의 동일한 대화맥락에서 'my'와 'our'의 사용을 비교해 보면, 영어권에 비해 '내'보다 '우리'를 현저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체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경옥 2005, 이한규 2007 등).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설명은 부분적인 해답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소유격의 의미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윤재학(2003, 2005)의 제안을 바탕으로 소유격 '우리'와 '내'의 의미가 영어의 'our'와 'my'와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조언어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어 '내'가 영어 'my' 등에 비해서 '소유관계(genitive relations)'로

허용하는 관계가 소유(possession)에 국한되는 등 영어에 비해 더 제한적인 데서 출발하여, ‘우리’가 ‘내’의 복수형이 아니라는 점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일반적인 소유격의 의미에 있어서 언어에 따라 어떠한 매개변수적인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비교언어학적 의미연구의 작은 부분이다.

참고문헌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1-30.
 윤재학. 2005. 소유구문의 의미. 언어정보학회 2005년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경북대학교.
 이한규. 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담화와 인지 14.3:155-2178.
 정경옥. 2005. The Use of the First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Woorie in Korean Language. 한국어 교육 16.3: 405-422.

Ellipsis, Sluicing, and Focus

위혜경 (한국사이버대학교)

Ellipsis와 sluicing등의 생략 구문은 문장 중 되풀이되는 표현을 생략하여 발생하는 구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a,b)와 같은 동사구 생략구문과 공백화 구조의 경우는 (2a)와 같은 의문사 축약구문 (sluicing)의 경우와는 의미적으로 서로 달리 분석되어야 함을 보인다.

- (1) a. John likes Bill, but Mary doesn't ~~like Bill~~. (VP-ellipsis)
- b. John ate the beans and Bill ~~ate~~ the potatoes. (Gapping)
- (2) a. John ate dinner with someone, but I don't know who ~~John ate dinner with~~.
 (Embedded Sluicing)
- b. * John ate dinner with Harry, but they don't know who ~~John ate dinner with~~ .

간접의문축약문의 경우 Romero (1998, 2003)에서 관찰된 대로 (2a)에서와 같이 비한정 표현 something과는 가능하나 (2b)에서와 같이 Harry라는 한정 표현이 올 때 간접의문 축약이 불가능해 지는 한정성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동사구 생략구문이나 공백화구조에서는 (1a,b)에서 보이듯이 한정성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Rooth 1992, Romero 1998, Merchant 2008, etc.) 반복되는 부분을 음성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생략 현상은 초점구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종류의 생략 구문의 차이를 초점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비초점 부분의 조음성에 바탕을 두고 초점구의 의미를 조음표현에 대한 확인 서술 (identificational predication)로 보는 초점이론 (Kenesei 2005, E Kiss 2005, Wee 2001)과 사건 (event)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1a, b)와 (2a)의 한정성 효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되는 부분을 초점구문의 비초점 부분과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가지는 조음적 (anaphoric)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2a)와 같은 sluicing의 경우는 앞 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생략된 조음적 표현의 사건과 공지시 관계의 선행사라 할 수 있으나, (1a,b)와 같은 동사구생략, 공백화구조의 경우 생략된 조음 정보 부분이 앞 절의 내용을 선행사로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앞 절이 아닌 더 큰 사건의 문맥적 선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인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8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3/29 (토)	09:30 10:00	일반	류수린 (서울대) 임병화 (건국대) 권민재 (연세대)	통제언어 모형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최혜원 (이화여대)
	10:00 10:45	기획	홍우평 (건국대) 홍문표 (성균관대)	통제언어모형 검증방법론 - 가독성과 번역수월성을 중심으로 -	

Coffee Break (25분)						
11:10 12:20	*FISA 특강	남승호 (서울대)	Generative Lexicon: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0분)						
12:30 13:00	일반	정 찬 (동서대)	English Phrasal Verb Constructions under VP Shells			
04/26 (토)	09:30 10:15	기획	이기용 (고려대)	A Formal Semantics for Temporal Annotation	류수린 (서울대)	
	Coffee Break (15분)					
	10:30 11:40	FISA 특강	김종복 (경희대)	Construction Grammar: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조세연 (강원대)	Two Types of NP Coordination in Korean: A Lexical Approach		
	12:30 13:00	일반	최혜원 (이화여대)	Ordering Dative and Accusative Arguments in Korean: A Corpus Study		
05/24 (토)	09:30 10:15	기획	정수정 (서울대)	독어 동사 관용구의 사전적 기술에 관하 여		유은정 (서울대)
	Coffee Break (15분)					
	10:30 11:40	FISA 특강	양병선 (전주대)	Role and Reference Grammar: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 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윤재학 (경희대)	소유의 의미유형		
	12:30 13:00	일반	위혜경 (한국사이버대)	Ellipsis, Sluicing, and Focus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